

안전에 관한 의식을 확고히 하여

화재보험협회 이창규 이사장님, 그리고 친애하는 조선 및 해운·수산관계자 여러분!

오늘 조선산업과 해운·수산산업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산·학·연 관계자 여러분을 모시고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주최하는 「선박화재안전」에 관한 방재기술세미나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본인이 축사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화재안전세미나는 건물등 육상에서의 화재안전만을 주로 다루어 왔으나 오늘 한국화재보험협회 방재시험연구소에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선박화재안전」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은 일이라 생각하며, 오늘의 이 세미나가 앞으로 선박에서의 화재를 줄이고 선진방재기술을 보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진방재기술 보급을 통한 국가방재기술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한국화재보험협회 이창규 이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조선 및 해운·수산관계자 여러분!

바다는 “21세기의 신대륙”이라고 까지 불릴 정도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우리들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바다를 지배한 자만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배웠습니다.

오늘날에 와서도 해양을 둘러싼 국제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UN 해양법협약이 발효되어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함에 따라 한치의 바다라도 더 차지하기 위한 해양분할 경쟁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해양국가로서의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산업이 우리 실생활과 멀리 떨어져 있는 탓으로 대다수 국민들은 조선산업과 해운·수산업의 중요성을 피부로 느끼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에 정부는 국제환경 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국가해양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밑받침이 될 수 있도록 지난해 8월 정부조직을 개편, 10개부처 3개청에 분산되어 있던 해양행정을 통합하여 해양수산부를 발족시킨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우리나라가 명실공히 선진해양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해양정책을 수립하여 국내 해양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양과학 기술을 적극 개발해 나아가 계획입니다.

그간 정부 등 우리사회 각계 각층에서 해상안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최근 해상에서의 안전사고가 많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니 지금도 해상에서 인명과 재산을 한꺼번에 앗아가는 안전사고의 위험은 상존하고 있어 해상에서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선박화재안전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인 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소가 세미나를 개최하여 선진방재기술 및 선박화재 안전에 관한 최신정보를 조선산업과 해운산업의 안전관계자들에게 전파함으로써 해상에서의 안전사고를 방지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된 것은 매우 값지고 고무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조선 및 해운·수산관계자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개최되는 「선박화재안전」 세미나를 계기로 우리 모두 안전에 관한 의식을 확고히 하여 선박화재뿐만 아니라 해상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가꾸는데 다같이 동참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21세기 해양시대를 이끌어 나갈 조선 및 해운·수산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한국화재보험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중심으로 기원하면서 이만 축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1997. 3. 19
해양수산부장관
신상우